

신라시대 약사신앙의 보리심 사상 전개에 대한 일고(一考)

오현희

(동국대학교 박사)

국문 초록

불교가 한반도에 도입되는 초기부터 불교는 교리적 깊은 이해보다는 복을 구하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밀교적인 요소에 의해 먼저 이해되고 수용되었다. 이에 한국불교의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을 이해하려면 밀교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밀교적 신앙 형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신라시대의 약사신앙이 있다. 신라의 약사신앙은 불교의 도입단계에서부터 신라 왕실과 귀족 민간계층 전반에 걸쳐 크게 성행하였음을 현존하는 유적과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약사신앙이 전래하던 시기와 이후의 유행 형태를 전하는 중심 문헌으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있다. 전해지는 문헌을 통해 약사신앙이 신라불교의 형성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라시대 약사신앙의 특성을 요약하면 치병(治病)과 구복(求福) 그리고 동방정유리정토(東方淨琉璃淨土)의 왕생에 대한 믿음이다. 이 같은 신라 사회의 약사신앙은 불보살의 보리심 사상에 기반한 신라의 복지적 세계관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대의 복지 이념과 맞닿은 것이다. 즉 신라 사회의 질병과 기아, 빈민 등의 현세적 고통으로 중생이 신음할 때 약사여래의 대비심은 중생을 현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약사여래의 12대원은 약사여래가 보리심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써, 중생심을 제도하고 거두어 불국토에 태어나게 하려는 보리심 사상의 궁극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신라불교라는 독자적 문화에 형성된 약사여

래의 보리심 사상을 고찰하고, 한국불교가 지닌 깊은 밀교적 배경을 통해 신라시대의 약사신앙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신라불교, 약사여래, 약사신앙, 밀교, 약사경, 보리심 사상

I. 들어가는 말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은 정각과 중생을 구하려는 보살의 서원을 담으려는 보리심 사상의 성립으로 전개된다. 즉 인도불교의 보리심 사상은 의례적인 보살의 발원으로 이어져 대승 경전 가운데 중생을 구하려는 열망으로 개인적 사회적인 복지사상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나아가 정도신앙과 결합하여 왕생극락의 신앙적 전개로도 이어진다. 대승불교의 약사신앙은 초기 밀교 경전에 속하고 있고, 대승 초기에 유행했던 보리심 사상의 밀교적 신앙 소재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인도, 티베트와 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전파된다.

4세기 한반도에 처음 불교가 전래한 이래 7~8세기 통일신라시대에는 화엄(華嚴)·법상(法相)·열반(涅槃)·계율(戒律) 등의 다양한 불교사상이 성행하였고, 이러한 불교사상의 배경 아래 『약사경』이 우리나라에 전래 되었다. 약사신앙은 중생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여러 약사불상이 조성(造成)되어 그 일부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시기의 한반도 밀교 전래는 중국으로부터의 불교 전래와 거의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밀교에 대한 기록은 주로 『삼국유사』에 있다. 『삼국유사』에는 주법(呪法), 주술 등의 신이적(神異的) 기록 등이 다수 등장한다. 이러한 신이적인 기록 등을 통해 신라불교의 밀교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신라시대 전래된 밀교는 무속신앙의 반발을 극복하고 도교 등 여타의 민간사상을 흡수하면서 불교 토착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한다.¹⁾ 이처럼 불교에 있어 밀교적인 요소는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가운데 약사신앙은 가장 크게 밀교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신라 중고대의 약사신앙이 치병과 구복의

1) 서윤길 2006, 77-78.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약사신앙의 특성은 치병 신앙과 관련된 현세기복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약사신앙은 질병자의 치료나 형벌이나 빈곤 등 현실 생활에서의 구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개인적인 횡사(橫死)나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불교도들은 이를 주재하는 약사여래의 동방정유리정토(淨琉璃淨土)에의 왕생(往生)을 기원하였다. 이때 약사신앙의 특징으로는 극락왕생에서 탈락한 자도 미타정토로 인도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과, 수명 연장을 위해서 죽어갈 때 칠층 등과 오색속명번(五色續命幡)을 달고 경을 독송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라시대 초기의 약사신앙은 치병을 위하여 『관정경』 등 밀교계통의 경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선덕왕 때 『약사경』 독송으로 왕의 병을 치료하였고, 신문왕 때 혜통(惠通)은 주술로 왕녀의 병을 치료하였다고 한다.²⁾ 이를 통해 신라의 약사신앙에 밀교적 성격이 연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약사신앙은 신라인의 정신을 하나로 집약시키고 교파를 초월하여 왕족과 귀족 민중 모두로부터 널리 추앙된 신앙이었다는 것이다.

약사신앙과 관련해 정병삼, 허형욱, 김정숙 등의 논문이 있으나 주로 치병 신앙을 중심으로 신라불교의 약사신앙을 고찰하였다.³⁾ 반면 약사신앙에 나타난 보리심 사상을 고찰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신라불교라는 독자적 문화에 형성된 약사여래의 보리심 사상을 고찰하고, 한국불교가 지닌 깊은 밀교적 배경을 통해 신라시대의 약사신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라 약사신앙의 특징은 사상적 체계 즉 치병활동과 호국불교라는 것에 바탕에 두고 전개되었다는 데 있다. 중국에서 정매(淸邁), 규기(窺基), 지개(智開) 등 여러 유학승이 『약사경』 주석서를 찬술했는데, 당(唐) 혜관(慧觀)의 『약사경소』(682년)가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 일본 저술로는 동시대에 善珠(724~797)의 『약사경소』가 있어 신라 불교의 약사신앙과 대비된다.

3) 정병삼(2013)은 약사신앙을 治病 신앙과 관련된 현세기복적 의의와 정토왕생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허형욱(2021)은 신라 약사신앙의 흐름과 특징을 『약사경』 해석과 의례의 設行, 의약 분야와의 접목을 통하여 약사신앙을 고찰하였다. 김정숙(2022)은 약사여래의 치병신앙과 횡사의 구제 내용을 통하여 약사신앙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II. 신라불교의 특수성과 약사신앙에 함의된 보리심

1. 신라불교의 약사신앙

신라의 약사신앙을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에서는 류송(劉宋)시대부터 속명법 때 문에 유행된다. 반면 신라의 약사신앙은 치병과 호국의 목적으로 신앙이 되었다. 이처럼 중국과 신라의 약사신앙에 관한 유행형태가 다른 것은 약사신앙에 대한 가치 형성의 배경과 구조가 다르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약사신앙에서의 사상적 측면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국가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신라의 약사신앙 유행 초기에 밀본이 행한 질병 치료는 개인적 측면으로 볼 수 있고, 후에 명랑의 문두루법에 의한 외적 퇴치의 호국적인 신앙은 국가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약사신앙이 지닌 대표적인 밀교적 특성이다. 그런데 신라에 밀교가 유행된 시대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초기 밀교가 약사신앙이 발아가 되어 시작되었고, 이후 전개된 밀교에는 약사신앙이 지닌 사상들이 다양하게 용해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 밀교는 약사신앙이 그 전체를 모두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약사신앙에 나타난 보리심 사상의 전개 과정이 곧 신라 밀교의 흐름을 대표할 수 있다는 관점이 가능해진다. 그 단적인 예는 고려 초에 형성된 밀교 종파의 성립에서 찾을 수 있다. 종파 성립의 모태는 명랑계의 신인작법에 의한 호국밀교와 혜통계의 개인적인 치병과 제액을 위주로 한 밀교라고 할 수 있다.⁴⁾ 이 밀교의 두 흐름은 후에 명랑계는 신인종(神印宗)을 탄생시키고 있고 혜통계는 지념업(持念業)과 총지종(總持宗)을 성립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 신인종은 『삼국유사』에서 종파의 설립유래가 전해지고 있지만 지념업과 총지종에 관해서는 단지 혜통이 세운 총지사의 유래가 전해질 뿐이다. 따라서 신라 약사신앙은 밀본의 치병 활동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밀교적 전개 과정을 보이고 외형적으로 명랑에 의해 호국신앙으로 발전되어 신인종을 탄생시키며, 혜통에 의해 치병 제액의 측면으로 발전되어 지념업과 총지종을 탄생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신라에 체계화된 밀교가 전해지기 이전에는 주로 유가승들에 의해 밀교가 연구되었다. 이와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은 「신주편」 명랑신인 조에서 찾을 수 있다.⁵⁾ 『삼

4) 서윤길 2006, 172-178.

5) 『삼국유사』권5 「신주편」 명랑신인 조.

국유사』의 관련기사에는 명랑법사가 문두루법을 행할시 “유가에 밝은 12인의 승려”가 동원된 것과 『약사경』에 관해 저술을 남긴 이들이 모두 유가에 밝은 스님들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신라 밀교가 유가승들에 의해 기초가 세워지고 신라 밀교의 독자성이 보이게 된 것은 체계화된 밀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당시의 유가승들이 밀교 사상을 정리하여 나름 체계화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밀교를 연구한 유가계 승려들의 저술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유가계 승려들은 계율, 정토, 밀교, 화엄 등 불교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연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축적된 지식으로 밀교를 해석하였다. 그중 특이한 점은 현교와 밀교를 사상적으로 융합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신라불교에 있어서 무격신앙(巫覡信仰)의 구병적(救病的) 요소는 처용랑(處容郎)의 설화에 잘 나타나 있다. 『삼국유사』 2卷 「기이(紀異)」 第2 처용랑 망해사(處容郎 望海寺) 條에 처용이 자기의 처와 동침한 역신(疫神)을 용서함으로써, 역신이 처용의 모습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고, 이에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이 설화의 상징적 의미로는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은 질병 전염의 사실을 표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춤과 노래로 역신을 추방함으로써 처용은 가무로 제재초복(除災招福) 하는 무신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 준다.⁶⁾ 처용랑 설화를 통해 당시 신라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무주적(巫覡的) 퇴치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무격신앙과는 달리 도교는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보다는 불로장생을 위한 방술(方術)을 더 많이 보급하여 간접적으로 질병 치료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즉 도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도관(道觀)에서 天·地·日·月·星辰에 제사 지냄으로써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⁷⁾

약사신앙의 신라 전래에 대해 불교사에 있어서는 밀본(密本)에서부터 그 시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밀본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밀본과의 관계가 주목되는 원광(圓光)의 행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다. 원광은 진평왕 11년(589)에 진나라에 들어가 『성실론』과 『열반경』을 이해하여 마음에 새기고, 삼장(三藏)의 불교 이론을 두루 들춰 탐구한 뒤, 오(吳)나라의 호구산(虎丘山)에 들어가 선정에 매진하였고 동왕(同王) 22년(600)에 귀국하였다.⁸⁾ 원광의 행적 중에는 이러한 대승 교학적인 측면과 아울러 짙은 밀교적인 사상도 볼 수 있다. 그것은

6) 유동직 1989, 10.

7) 유근자 1993, 25-27.

8) 신종원 1998, 72-77.

『점찰선악업보경』의 점찰법(占察法)으로 무속적인 점복(占卜)을 대표한 최초 개설자가 바로 원광이라는 것이다.⁹⁾ 그는 수계참법(修戒懺法)의 법을 치병주술(治病呪術)에 활용하여 국왕의 병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또한 원광은 공양된 보시물을 베풀고 나누는 경제 활동 즉 현대의 복지 개념을 신라에 유입하였다.¹⁰⁾ 현대의 복지 이념과 궤를 같이 하는 신라 사회의 경제 활동에 관한 내용을 『삼국유사』 ‘원광 서학 조’에서 볼 수 있다.

“법흥왕이 불법을 일으킨 이래, 중생제도의 방편이 비로소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불법의 깊은 곳에는 완전하게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귀계멸참(歸戒滅懺)의 법으로써 우매한 중생들을 개효(開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원광은 머물고 있던 가서사(嘉栖寺)에 점찰보(占察寶)를 설치하고 상규로 삼았다. 이때 단월 니가 있어 그 점찰보에 전지를 헌납하였는데, 지금의 동평군 전지 1백결이 그것으로 옛 문서가 아직 남아 있다.”¹¹⁾

이것은 보시받은 공양물을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다시금 궁핍한 민중에게 베풀어 민중을 이익되게 하는 경제적 복지 활동이다.

원광은 당시의 승려들이 대부분 진골(眞骨) 출신이었던 데 비해 육두품(六頭品) 출신으로 추정되며¹²⁾ 서학(西學)하기 이전에 이미 밀본이 후에 거주하게 되는 삼기산에서 수도하고 있어 밀본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¹³⁾ 원광은 출가 후 삼기산에서 무속적인 신과 주술로 접하고 있었으며 “향년 84세로 입적하여 부도(浮屠)가 삼기산 금곡사(金谷寺)에 있다”라는 기록을 통해 귀국하여 만년에는 삼기산에서 주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원광이 무속 점복을 불교 업설의 점찰법으로 대치하고 수계회법(授戒會法)을 질병 치유에 활용하는 등의 기록을 통해 그가 밀교적 소재를 적극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9) 『점찰선악업보경』의 상권은 주로 길흉을 점치고 선악의 과보를 판별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권에서는 주로 여래장 사상에 바탕을 둔 고답적(高踏的) 이론을 전개한다. 고익진 1988, 250-251.

10) 홍재성 2011, 68.

11) 『삼국유사』 권4 「義解」第5 「圓光西學」條, 184; 고익진 1988, 250.

12) 김복순 2016, 96-121.

13) 김재경 1988, 289-295.

14) 『삼국유사』 권4 「義解」第5 「圓光西學」條: “年八十餘 卒於貞觀 間浮屠在三岐山 金谷今安康之西南洞也 亦明活之西也.”

2. 호국불교와 치병 활동

신라불교의 사회적 특수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밀교적 특성을 보이는 호국불교이고, 두 번째는 밀교적 주술과 관련된 치병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신라불교에서 명랑(明朗)은 『관정경』에 입각해서 호국적인 밀교의례를 조직하여 최초로 실행하였다.¹⁵⁾ 명랑의 문두루비법은 『관정경』 卷7 「복마봉인대신주경(伏摩封印大神呪經)」의 문두루법에 입각한 것으로, 일본이 단순히 『관정경』의 『약사경』 주법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비해 호국적인 주술 의례를 조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명랑은 호국불교를 대표하는 승려로써, 구법승(求法僧)으로 귀국 후에 문두루법을 행하여 당의 군사를 물리치고 한산(?山) 기슭에 사천왕사를 세웠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 약사신앙과 관련되는 인물은 혜통(惠通)이다.¹⁶⁾ 혜통(惠通)에 의한 밀교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당나라 고종(649~683) 때 입당(入唐)하여 문무왕 5년(665)에 귀국하고, 문무왕 때부터 효소왕 시대에 크게 활약한 밀교승이라고 한다.¹⁷⁾ 혜통은 당(唐)에서 밀교를 배웠고 주술을 이용하여 치병을 행한 승려이다. 혜통의 행장에 대해선 『삼국유사』 5卷 「신주」 第6 「혜통항룡」조에 자세하게 기

15) 『三國遺事』2卷 「紀異」第2 文虎(武)王(法敏)條. 여기에는 문무왕대(661~680)로 기록되어 있다. 문두루는 산스크리트(Sanskrit)어 무드라(mudra)의 음사이고 신인(神印)으로 번역된다.

16) 『三國遺事』5卷 『神呪』第6 「惠通降龍」條: “時唐室有公主疾病, 高宗請救於三藏, 舉通自代 通受教別處, 以白豆一斗呪銀器中, 變白甲神兵, 逐崇不克, 又以黑豆一斗呪金器中, 變黑甲神兵, 令二色合逐之, 忽有蛟龍走出, 疾遂? …중략… 王女忽有疾, 詔通治之, 疾愈. 王大悅通因言 恭被毒龍之汚濫膺國刑 王聞之心悔 乃免恭妻? 拜通爲國師 …중략… 初神王文發疽背 請候於通, 通至呪之立活 …중략… 先是密本之後有高僧明朗, 入龍宮得神印 梵云文豆婁 此云神印 祖創神遊林 今天王寺, 屢禳隣國之寇 今和尚傳無畏之髓, 遍歷塵?, 救人化物 兼以宿命之明 創寺雪怨 密教之風於是乎大振.”

“당나라 황실의 공주가 병이 나서 高宗은 삼장에게 치료를 청하였고, 삼장은 자기 대신 혜통을 천거하였다. 혜통이 …중략… 명을 받고 별실에 머물면서 흰 콩 한 말을 은그릇에 담아 주문을 외우자, 흰 갑옷을 입은 神兵으로 변하여 마귀를 쫓으려고 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검은 콩 한 말을 금 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우자 검은 갑옷을 입은 신병으로 변하였다. 흰색과 검은색 신병에게 힘을 합쳐 마귀를 쫓게 하자, 홀연히 교룡이 달아났고 질병도 드디어 치료되었다. …중략… 어느날 왕의 딸이 갑작스럽게 병이 났다. 그러자 왕이 혜통에게 치료를 명하였더니 딸의 병이 나왔다. 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 혜통이 말하였다. “정공은 독룡에게 해를 입어서 억울하게 나라의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략… 이보다 앞서 일본 법사의 뒤에 고승 明朗이 용궁에 들어가 神印[범어로는 文豆婁]을 얻어 와서는, 神遊林[지금의 天王寺]을 처음으로 세우고, 여러 번 이웃나라의 침략을 기도로 물리쳤다. 그리고 무외삼장의 핵심 사상을 전하며 세속을 두루 다너 사람들을 구제하고 만물을 교화시켰다. 아울러 타고난 밝은 지혜로 절을 창건하여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리하여 밀교의 교화가 이 시대에 크게 펼쳐졌다.”

17) 박도희 2015, 27.

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혜통(惠通)은 정씨와의 관계로 인해 효소왕(692~702) 즉위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왕녀의 병을 치료하여 낮게 해준 공으로 국사로 책봉되었다.¹⁸⁾

신라초기 밀교적인 흐름은 『삼국유사』 5卷 「신주」 第6에 실린 밀본, 명랑, 혜통 3인에 의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¹⁹⁾ 그 중 밀본은 선덕왕 때의 저명한 밀교승으로 『약사경』 독송을 치병주술에 사용하고 있음이 특징적인데 그의 『관정경』 도입은 문무왕대의 명랑에게 계승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명랑의 호국적인 문두루법회는 단순히 『관정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금광명경』의 사천왕 호국사상과 『대방광십륜경』의 십륜호국 사상 등이 깊이 스며져 있다. 즉 명랑의 문두루법회는 『관정경』 권7 주술의례에 『금광경』 『십륜경』 등의 호국사상을 더하고 그 위에 다시 유가사상을 곁들인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다.

밀교적 관점에서 원광, 밀본, 명랑, 혜통의 행장을 살펴보면, 비록 주술(呪術)에 입각하기는 했어도 이들 행적의 공통점이 모두 병의 치유인 치병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치병 활동이 당시 신라 사회의 약사여래불 신앙과 직간접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지하듯이 신라왕실을 중심으로 한 약사신앙은 수행승 밀본의 치병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고, 명랑과 혜통 등 구법승들의 호국활동을 통하여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불교계에 확실한 입지를 마련한다.

8세기의 약사신앙의 성행을 알려주는 기사는 『삼국유사』 권3 「탑상(塔像)」 제4 조의 다음 부분이다.

그 다음 해 을미년(서기 755)에 분황사의 약사여래동상(藥師如來銅像)을 주조했는데, 무게가 306, 700근이었다고 한다.²⁰⁾

이처럼 대규모의 약사여래상이 도성(都城)의, 왕립사찰로서 조성된 것은 약사신앙이 신라 불교계에 크나큰 의미와 위치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는 거대한 분황사의 약사불상이 어떠한 연유로 조성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삼국사기』 卷9 경덕왕 14년 조에는 해당 시

18) 『三國遺事』 5卷 「神呪」 6 惠通降龍 條; 김재경 1988, 305-306.

19) 『三國遺事』 5卷 「神呪」 6 惠通降龍 條; 유근자 1993, 35.

20) 『三國遺事』 3卷 「塔像」 4 鑄芬皇藥師銅像 條: “又明年乙未, 鑄芬皇藥師銅像, 重三十方六千七百斤”

기의 사회적 모습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덕왕 14년 봄,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굶주렸다. 웅천주의 향덕이라는 사람이 가난하여 그 아버지를 봉양할 수가 없었으므로, 자기의 다리 살을 베어 아버지에게 먹였다. … 중략… 가을 7월, 죄수들을 석방하고, 늙고 병든 이·홀아비·과부·고아·자식 없는 노인들을 위문하고, 정도에 따라 곡식을 주었다.”²¹⁾

『삼국사기』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민중의 병고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와 범법자의 구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신라 사회의 재난 구제에 대한 복지관은 현대의 복지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죄인의 사면은 왕의 즉위에 동반한 ‘시조묘삼배(始祖廟三拜)’나 ‘입태자식(立太子式)’과 같은 정치적 대사(大事) 때에 행하였다고 한다. 성덕왕 이후에는 기근, 한발, 지진 등의 자연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행하였다. 경덕왕 14년 7월에는 즉위도 입태자식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해 봄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던 것과, 7월이 수확을 앞둔 시점인 것을 고려하면 30만 근이 넘는 구리를 투입한 분황사의 약사상 조성은 국가의 오탁 풍성에 대한 기원과 질병 치유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8세기 전반의 성덕왕에서 경덕왕, 혜공왕을 거쳐 9세기 후반의 진성여왕 시기의 신라는 역병과 기근이 잇달아 발생하였다고 한다.²²⁾ 이러한 상황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신라불교의 사회적 특수성과 약사신앙의 밀교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21) 『三國史記』9卷「新羅本紀」第9에 의하며, “十四年春 穀貴民饑 熊川州向德 貧無以爲養 割股肉飼其父 …중략… 秋七月, 赦罪人, 存問老疾鰥寡孤獨, 賜穀有差.”

22) 문명대(1997, 30-32)는 『삼국사기』의 원성왕(元聖王)에서 흥덕왕(興德王)에 이르는 시기의 기근과 역병, 자연 재해 등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당시를 재난의 시대로 보았다. 따라서 문명대는 당시의 신라 사회가 간절하게 여긴 것은 재난에서의 탈출이며 굶주림과 병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며 이에 의왕(醫王)으로 등장한 것이 약사불이라고 주장한다.; 이현숙(2003, 240-244)은 통일신라에 들어 빈발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동요하는 민심을 대의왕불(大醫王佛)인 약사신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III. 신라불교 약사신앙의 보리심 사상 전개와 수용

1. 『약사여래본원경』의 성립과 보리심 사상 전개

약사신앙과 관련된 『약사경』의 외형적 요소는 힌두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약사경』의 성립과정과 약사신앙의 사상적 전개과정 그리고 한역(漢譯) 과정을 밀교적²³⁾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승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굽타(Gubta) 왕조(B.C. 2~A.D. 4세기)는 정치적으로 힌두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불교는 지나치게 학문적 연구에 치우쳐 사회적 참여에 소홀하였기에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기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은 불교로 하여금 대승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성립시키도록 자극을 주었고 힌두교에 나타나는 진언·제사의식·만다라 등을 불교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힌두교의 요소들은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불교에 유입되다가 발전을 거듭한 후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성립을 계기로 사상적으로도 체계화된 밀교를 탄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²⁴⁾

약사신앙에서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치병(治病)과 관련된 사상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약사신앙의 질병 치유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원시불교 교단에서 주문(呪文)과 관련된 내용으로 등장한다. 초기 불교 교단에서는 주문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그렇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치병(治病)이나 호신(護身) 등의 목적에만 주문(呪文)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약사신앙의 질병 치유와 관련한 사상적 태동이 원시불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약사신앙의 원초적 형태는 초기 대승불교 경전인 『법화경』에 이르면 더욱더 구체적

23) 본 논문에서는 밀교의 개념을 불교에 밀교적 요소가 단편적으로 불교경전에 등장하던 초기의 밀교로부터 『대일경』과 『金剛頂經』의 탄생 후 사상적으로 체계화된 밀교의 성립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밀교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4) 기원전 1300년경 고대 인도에는 아리아인(Aryan)들이 인도의 원주민인 드라비다인(Dravidian)과 문다(Munda)인 등을 정복하고 발생시킨 문명 가운데 베다(Veda) 문학이 있다. 베다를 구성하는 리그베다(Rig-Veda)에는 제사의식과 여러 신도들에 대한 찬가가 있으며 아타르바베다(Athārva-Veda)는 우주의 근원과 부귀·장수·승전(勝戰), 그리고 저주와 저한(詛恨) 등에 관한 많은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베다 문학을 재조직하여 성립된 힌두교는 난해한 종교의 사유와 체득을 지양(止揚)하고 대중에 의해 손쉽게 수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변모하여 대중적으로 농민을 위하여 큰 세력의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정성준 1993, 4-6.

으로 나타난다. 즉 『법화경』을 구성하고 있는 「서품(序品)」에는 약왕보살(藥王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 등이 출현하고 있고, 「권지품」, 「법사품」, 「약왕보살권시품」, 「다라니품」 등에서는 약왕보살이 주체가 되어 설해지고 있다. 『약사경』에 등장하는 약왕보살과 월광보살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후에 『약사경』을 출현시킬 수 있는 외형적인 근거 마련과 『약사경』의 주불인 약사여래의 탄생을 짐작하게 한다.

인도에서 발생한 약사신앙은 중국과 티베트에 전해지면서 『약사경』이 번역되었다. 현재 한역 대장경에는 네 종류가 있고, 티베트 대장경 경전부 가운데 밀교부에 속한 두 종류가 있어 길기트 본과 함께 모두 일곱 종류의 『약사경』이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약사경』 가운데 우리나라에 전해진 경전은 한역된 것이다.²⁵⁾

신라시대 약사신앙의 전래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전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았을 때, 『약사경』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신주편(神呪篇)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⁶⁾ 따라서 『약사경』을 기준으로 신라의 약사신앙 도입 시기를 추정할 때 620~63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약

25) 백시리밀다라(帛尸梨密多羅) 역의 『관정경』 권12로 편입되어 있다. 이 경전의 내용은 달마굽다(達磨及多) 역 및 현장(玄奘) 역과 대동소이하다. 이 경전은 동진(東晉, 317~420) 원제대(元帝代, 317~322)에 백시리밀다라가 번역한 것으로, 류송시대(劉宋時代, 420~478)가 되어 널리 전해졌다. 이 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첫째 東晉(317~420)의 元帝代(317~322)에 帛尸梨密多羅의 번역이라는 것이다. 둘째, 劉宋(420~478) 武帝의 大明元年(457)에 慧簡이 初撰했다는 설이 있다. 『出三藏記集』 5卷(T55, 39a), 「新集疑經偽撰 雜錄」에 「灌頂經一卷, 一名藥師琉璃光經, 悉名 灌頂拔除非過右一部宋孝武帝大明元年(457)株陵鹿野寺比丘 慧簡, 依經抄撰 此經後有續命法 所以通行於世」 즉 梁代에는 이미 『관정경』의 권12로 편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僧祐는 다시 그것을 慧簡의 「譯出」이 아니라 「抄出」이라고 보고 疑撰 속에 수록하고 있다. 小野玄妙 1939, 53-67; 둘째 중국 수나라 大業12년(616년)에 달마굽다에 의해 번역된 『약사여래본원경』 1卷이다. 『藥師如來本願經』(T14, 401b-404c). 이 경전의 역경에 대해서는 同經의 서문에 상세하다. 즉 그 당시 세상에 유포되었던 유송 海간(劉宋 慧簡)의 번역이 잘못된 것이 있으므로, 이 잘못을 고치기 위해 開皇 17年(579)에 처음으로 수입한 1권과 大業 11年(615)에 새롭게 입수한 두 권을 비교하면서 번역한 것이다. 『藥師如來本願功德經序』(T14, 401a); 셋째 현장에 의해 唐 永徽 元年(650)에 번역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1卷이다. 『약사경』의 산스크리트어 명칭은 『Bhagavān-bhaisajyaguru-vaidūr ya rabhasyapūrva-praṇidhana-viśeṣa-vistrara』이다.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4c-408b); 유근자 1993, 13-14; 넷째 唐 神龍 3年(707)에 의정(義淨)이 번역한 것으로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2卷이다. 이 경전을 생략해서 『약사칠불본원공덕경』 또는 『칠불약사경』이라고 한다. 이 경전은 上·下 두 권으로 되어 있어 상권에서는 칠불약사(七佛藥師)의 서원을 설하고, 하권은 일광보살, 월광보살, 대다라니(大陀羅尼)와 49등공양법(燈供養法), 12약차신장(藥叉神將)의 공덕 등을 설한다. 여기에서 七佛이란 선명칭길상왕여래(善名稱吉祥王如來)·보월지엄광음자재왕여래(寶月智嚴光音自在王如來)·금색보광음묘행성취여래(金色寶光音妙行成就如來)·무우최승길상여래(無憂最勝吉祥如來)·법해뢰음여래(法海雷音如來)·법해승혜유희신통여래(法海勝慧遊戲神通如來)·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 등이다. 이 칠불은 일본에서 모두 약사불의 이명(異名)이라고 하고, 약사 이외를 「별불(別佛)」로 하는 등 논란이 있다. 정승석 1989, 238.

26) 『삼국유사』 권5 「신주편」 밀본최사 조.

사여래께 공양하기 위해 단(壇)을 설립하고 공양 의식을 행하는 것 또한 『약사경』의 성립 시기를 추정하는 데 있어 주요 단서가 된다고 한다.

『약사경』은 약사여래의 본원과 그 공덕에 대한 이익을 설법한 것으로, 치병과 재난 구원을 위한 주문(呪文) 등 강한 밀교적 성향을 보인다. 즉 『약사경』의 특징은 현세 이익을 설하고 약사유리광세계(藥師琉璃光世界)로의 왕생을 권하는 동시에 천상계(天上界)의 왕생도 배척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현세이익·정토왕생 사상을 모두 포괄하려는 의도에 따라 쓰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약사신앙에 깊게 함축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적 보리심 사상을 엿볼 수 있다.

2. 약사여래 12대원의 보리심 양상에 대한 이해

약사신앙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약사여래의 12대원과 중생들이 고통받는 칠난(七難)·구횡사(九橫死)로부터의 구제(救濟)이다.²⁷⁾ 이것은 약사여래가 일체중생을 보살피고 위하는 대자대비의 보리심이다. 즉 약사신앙의 치병(治病) 신앙과 구원 신앙은 약사여래가 성불하기 위해 세운 12대원 즉 발보리심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 약사여래 12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광명보조원(光明普照願), 생불평등원(生佛平等願)이라고 한다. 약사여래가 성불하면 그 광명이 온 세계의 중생에 두루 비추어 모든 중생이 약사여래와 같이 성불하여지기를 발원하는 것이다.²⁹⁾
- ② 수의작사업원(隨意作事業願), 개효사업원(開曉事業願)이라고 한다.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몸이 유리와 같이 빛나서 중생들이 그 광명으로 모든 일이 뜻과 같아 공덕이 원만해지기를 발원한다는 서원이다.³⁰⁾
- ③ 득무지물원(得無盡物願), 무진자생원(無盡資生願)이라고 한다.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고 중생이 원하는 대로 주고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원이다.³¹⁾

27) 정병삼 2013, 76; 김미진 2018, 27-31.

28) 정병삼 2013, 61.

29)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a): 第一大願 願我來世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 自身光明熾然 照耀無量無數無邊世界 以三十二大丈夫相 八十隨形 莊嚴其身 令一切有情如我無異.

30)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a): 第二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身如琉璃 內外明徹 淨無瑕穢 光明廣大 功德巍巍 身善安住 炤網莊嚴過於日月 幽冥衆生 悉蒙開曉 隨意所趣 作諸事業.

31)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a): 第三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以無量無邊智慧方便 令諸有情 皆得

④ 안립대승원(安立大乘願)은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중생이 사도에 빠지지 않고 붓다의正道(正道)로 인도하되, 소승으로 가는 자가 있다면 대승으로 안립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이다.³²⁾

⑤ 구계청정원(具戒淸淨願)은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일체중생이 붓다의 청정한 계율에 따라 수행하여 성불하되, 설혹 파계하더라도 약사여래의 명호를 들으면 삼악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³³⁾

⑥ 근원구병고원(根完救病苦願)은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이 세상에 신체 불구자가 없게 하고, 업보로 신체적 불구가 되어 고통을 받는 자가 약사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병고에서 구원받도록 하겠다는 원이다.³⁴⁾

⑦ 제병안락원(除病安樂願)은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약사여래의 명호를 한 번만 들어도 곧 심신이 편안해져 붓다의 세계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원이다.³⁵⁾

⑧ 전여득불원(轉女得佛願)은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만일 여성만이 가지는 불리한 조건으로 성불할 수 없다면 약사여래의 이름을 듣고 남성으로 변성하여 성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이다.³⁶⁾

⑨ 안립정견원(安立正見願)은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중생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외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견져주고, 정법에 의지하도록 하겠다는 원이다.³⁷⁾

⑩ 제난해탈원(除難解脫願)은 해탈우고원(解脫憂苦願)이라고도 한다.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국법을 어기고 사회 범죄를 지어 고통을 받거나 모함이나 실수로 감옥이나 벌을 받으며 슬퍼할 때 약사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그 마음에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자기의 복덕과

無盡所受用物 莫令衆生有所乏少。

32)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a): 第四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諸有情 行邪道者 悉令安住菩提道中 若行聲聞 獨覺乘者 皆以大乘而安立之。

33)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a): 第五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有無量無邊有情 於我法中修行梵行 一切皆令得不缺戒 具三聚戒 設有毀犯 聞我名已 還得淸淨 不墮惡趣。

34)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a): 第六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諸有情 其身下劣 諸根不具 醜陋頑愚 盲聾啞 攣?背? 白癩癩狂 種種病苦 聞我名已 一切皆得端正點慧 諸根完具 無諸疾苦。

35)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a): “第七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諸有情 衆病逼切 無救無歸 無醫無藥 無親無家 貧窮多苦 我之名號一經其耳 衆病悉除 身心安樂 家屬 資具悉皆豐足 乃至證得無上菩提。”

36)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b): “第八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有女人 爲女百惡之所逼惱 極生厭離 願舍女身 聞我名已 一切皆得轉女成男 具丈夫相 乃至證得無上菩提。”

37)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b): “第九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令諸有情 出魔?網 解脫一切外道纏縛 若墮種種惡見稠林 皆當引攝置於正見 漸令修習諸菩薩行 速證無上正等菩提。”

위력을 성취하도록 하겠다는 원이다.³⁸⁾

⑪ 음식포족법미안락원(飮食飽足法味安樂願)은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배고파 굶주리며 고통받는 중생이 있다면, 또 굶주림을 면하려고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약사여래의 명호를 듣고 마음으로 참회하여 계율을 지키면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맙게 여겨 심신을 안락하게 하겠다는 원이다.³⁹⁾

⑫ 의복일체장엄구족원(衣服一體莊嚴具足願)은 약사여래가 성불하여 가난에 쪼들리고, 해 추와 추위와 더위로 고통받는 자가 있어서 그들이 약사여래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기원하면 바라는바 의복이 주어져 흡족한 마음을 갖게 하겠다는 원이다.⁴⁰⁾

이처럼 약사여래의 발원은 고통받는 일체중생이 그 바라는 마음에 따라서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일체중생을 깨달음의 지혜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러한 12대원의 내용은 약사여래의 위신력을 통해 중생세간의 정법과 치병을 통한 안락, 그리고 온전한 승가의 보존과 외두, 마와 사후안녕 등을 고루 다룸으로써 경전 성립 당시 인도불교를 통해 대중들이 요청했던 대승불교의 신앙적 면모를 두루 반영하고 있다. 약사여래의 12대원은 물질생활뿐 아니라 사회교육에 관한 관심과 정상적인 오락까지도 중요하게 밝힘으로써 사람마다 진정으로 화합하고 다툼이 없는 불법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3. 약사정도에 나타난 보리심 사상과 복지 이념

『약사경』에 나타난 약사정도의 특징은 현세의 이익뿐만 아니라 내세의 이익까지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경 가운데 동방정도와 서방정도를 함께 설하고 있으며, 특히 동방의 정유리광세계로의 왕생사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약사경』은 현세 이익과 내세의 정도 왕생사상을 모두 포괄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약사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8)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b): “第十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諸有情 王法所錄 繩縛鞭撻 系閉牢獄 或當刑戮 及餘無量災難陵辱 悲愁煎逼 身心受苦 若聞我名 以我福德威神力故 皆得解脫一切憂苦。”

39)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b): “第十一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諸有情 饑渴所惱 爲求食故造諸惡業 得聞我名 專念受持 我當先以上妙飲食飽足其身 後以法味畢竟安樂而建立之。”

40)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b): “第十二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諸有情 貧無衣服 蚊虻寒熱 晝夜逼惱 若聞我名 專念受持 如其所好 即得種種上妙衣服 亦得一切寶莊嚴具 華鬘 塗香 鼓 衆伎 隨心所 皆令滿足。”

- ① 악기와 찬탄하는 노래 항목에서는 약사정토는 북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며 약사여래상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약사여래의 본원공덕을 생각하도록 하였다.⁴¹⁾
- ② 불국토의 수명과 불토의 공덕장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약사정토는 동쪽으로 십향하사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류리(淨瑠璃)요, 그 부처님의 명호는 약사유리광여래이시며 그 공덕의 이름은 응공·정등각이다.⁴²⁾
- ③ 약사정토에서는 즐거이 구함에 따라 일체 모두가 성취될 것이다. 장수하기를 바라면 장수함을 얻을 것이며, 부자 되기를 바라면 부자가 될 것이며, 관의 지위를 구하면 관의 지위를 얻을 것이며, 남녀를 구하면 남녀를 얻는다고 하였다.⁴³⁾
- ④ 불퇴전에서 약사정토는 길이 악마의 그물을 끊고, 무명(無明)의 껍질을 깨뜨리고, 번뇌의 강을 마르게 하며, 일체의 생과 늙음과 병과 죽음의 근심과 걱정, 고뇌(苦惱)를 해탈한다고 하였다.⁴⁴⁾
- ⑤ 향(香)에 대해 약사정토에서는 온갖 꽃향과 도향(塗香)과 말향(末香)과 소향(燒香)과 화만(花?)과 영락(瓔珞)과 번개(幡蓋)와 기악(伎樂)으로서 공양하여, 오색의 실로 주머니를 만들어 이를 갈무리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높은 자리를 만들어 안치한다고 하였다.⁴⁵⁾
- ⑥ 약사정토는 칠보장엄으로 궁궐과 누각과 난간과 창문과 나망(羅網)이 모두 7보(寶)로 되어 있다. 또 서방극락세계의 공덕장엄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⁴⁶⁾
- ⑦ 약사정토의 등(燈)과 방생에서는 마흔 아홉 개의 등(燈)을 밝혀야 하며, 여래의 형상 일곱을 만들어 그 낱알의 상(像) 앞에 각각 일곱 개의 등을 놓고, 낱알 등의 크기는 커다란 수레바퀴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십구일동안 광명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오색의 채번(綵幡)은 마흔 아홉 갈래여야 하고, 마땅히 잡류중생을 방생해야 하는데 마흔

41)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6c): “應生無垢濁心 無怒害心 於一切有情 起利益安樂 慈悲喜捨 平等之心 鼓樂歌讚 右繞佛像 復應念彼如來本願功德”

42)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a): “佛告曼殊室利 東方去此過十殑伽沙等佛土 有世界名淨瑠璃 佛號藥師琉璃光如來 正等 明行圓滿 善逝 世間解 無上丈夫 調御士 天人師 佛 薄伽梵 曼殊室利 彼佛世尊藥師琉璃光如來 本行菩薩道時 發十二大願 令諸有情 所求皆得”

43)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6c): “佛告曼殊室利 讀誦思惟其義 演說開示 隨所樂願 一切皆遂 求長壽 得長壽 求富饒得富饒 求官位得官位 求男女得男女”

44)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6a): “常遇善友 永斷魔羅 破無明 竭煩惱河 解脫一切 生病 死 憂悲 苦惱”

45)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6b): “以種種花香 塗香 末香 燒香 花鬘 瓔珞 幡蓋 伎樂 而為供養 以五色綵 作囊盛之 掃灑淨處 敷設高座 而用安處”

46)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b): “琉璃為地 金繩界道 城闕 宮閣 軒窓 羅網 皆七寶成 亦如西方極樂世界 功德莊嚴 等無差別”

아홉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⁴⁷⁾

⑧ 아미타불 친견시기에서 약사정토는 팔분재계(八分齋戒)를 수지하고, 혹은 일년을 지나고 혹은 다시 세 달을 지나서 진리를 수지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근으로 서방극락세계의 무량수불이 계시는 곳에 태어나 정법을 듣고자 원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가 만약 세존 약사유리광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목숨이 다 할 때, 여덟 분의 대보살, 즉 문수사리보살과 관세음보살과 득대세보살과 무진의보살과 보단화보살과 약왕보살과 약상보살과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여덟 분의 대보살이 하늘을 타고 와서 그 길을 가리켜 준다고 하였다.⁴⁸⁾

⑨ 약사정토에서 본원의 위력과神通력에 대한 것이다. 약사정토는 설사 여러 악행을 버리고 선법(善法)을 수행하지 못하여 악취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여래 본원(本願)의 위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잠시 현전(現前)에서 이름을 듣게 하여 그곳에서 목숨이 다하여서는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게 한다고 하였다.⁴⁹⁾

주지하듯이 약사정토는 약사여래가 일체중생에 대한 대비의 보리심으로 중생들의 몸과 마음에 생기는 병의 치유와 중생이 겪어야 할 고난의 구원 사상이 확장된 것이다. 즉 약사정토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복지 사회의 구현과 맞닿아 있다.

약사여래불은 과거에 ‘약왕’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해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념의 12대원을 발원한다.⁵⁰⁾ 이것은 곧 불보살의 발보리심으로 볼 수 있으며 후에 그 공덕으로 약사불이 된다고 한다. 약사불의 협시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다. 권속으로는 12신장을 거느린다.⁵¹⁾ 『약사경』을 통해 나타난 불보살의 권속과 의궤들은 초기 밀교경전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보리

47)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7c): “然四十九燈 造彼如來形像七軀 像前各置七燈 燈量大如車輪 乃至四十九日 光明不絕 造五色綵幡 長四十九搩手 應放雜類衆生至四十九 可得過度危厄之難 不爲諸橫惡鬼所持。”

48)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6b): “及餘淨信善男子 善女人等 有能受持八分齋戒 或經一年 或復三月 受持學處 以此善根 願生西方極樂世界無量壽佛所 聽聞正法 而未定 若聞世尊藥師琉璃光如來名號 臨命終時 有八菩薩 乘神通來 示其道路。”

49)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5c): “若得聞此藥師琉璃光如來名號 便捨惡行 修諸善法 不墮惡趣 設有不能捨諸惡行 修行善法 墮惡趣者 以彼如來本願威力 令其現前暫聞名號 從彼命終還生人趣 得正見精進 善調意樂。”

50)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T14, 401b-402a).

51) 『藥師如來本願經』(T14, 404b): “宮毘羅大將, 跋折羅大將, 迷迭羅大將, 安捺羅大將, 安怛羅大將, 摩涅羅大將, 因陀羅大將, 波異羅大將, 摩呼羅大將, 眞達羅大將, 招度羅大將, 鼻羯羅大將.”

12신장은 약사여래의 12대원에 따라 표현된 약사불의 분신이라는 설이 있다. 12신장에 대한 자료는 『불설

심 사상의 의례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⁵²⁾

IV. 나가는 말

한반도에 전파된 밀교 대부분은 초기 밀교인 잡밀이다. 초기 밀교의 특징으로는 주로 복을 빌고, 건강을 기원하고,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등의 의례로 발달한다. 이 같은 형태의 밀교는 우리나라 전통적 민간신앙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불교가 민간신앙을 포섭하고 융합하는 것에 있어 불교 민중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의 약사신앙은 기존의 무속사상을 지지하는 왕족세력과 불교를 지지하는 왕족과의 세력 갈등 사이에 유입되었다. 유행 초기에는 개인의 구복 위주와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강조되며 유행되다가 이후 명랑에 의해 호국적인 면이 부각되어 국가적 인정을 받으면서 신라에 크게 유행했다. 또한 신라시대 약사신앙은 다른 불교국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신인종을 성립시켰다. 약사신앙에서의 호국사상을 토대로 삼은 신인종은 종파를 형성할 만큼 유식사상에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현교와 밀교를 융합하고자 했던 독자적 사상체계를 엿볼 수 있다.

신라에 불교가 전파될 초기의 구법승들은 신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병을 치료하는 치병 능력이다. 이것은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 상황에서 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밀교의 신앙이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약사여래본원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 장충식은 12신장에 대해서 12지상이 불교의 조각상으로 등장된 것에는 소위 약사여래의 권속에서 유래되는 것이리라 추정한다. 즉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체달한 신신으로 등장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원의 불화나 조각상으로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장충식 1986, 476.

52) 『약사본원경』에서는 ‘구형사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구형사(九橫死)라는 것은 사고사, 예측할 수 없는 죽음, 정상적이지 못한 죽음 또는 수명이 다하지 않을 때 죽는 것의 의미로서 구종형사(九種橫死)라고도 한다. 구종형사는 다음과 같다. ① 비록 가벼운 병을 얻었을지라도 의사와 약과 간호하는 사람이 없고, 설사 의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약이 없어서 죽지 않을 병임에도 횡사하며, …중략… 어리석고 미혹하고 전도된 견해 때문에 횡사하여 지옥에 떨어져 나올 기약이 없는 것 ② 왕법에 걸려 誅殺을 당하는 것 ③ 사냥하고 弄蕩질하며 淫行에 탐닉하고 술을 즐기면서 절도 없이 방탕하다가 非人(神이나 半神)에게 그의 정기를 빼앗겨 죽는 것 ④ 불에 타서 죽는 것 ⑤ 물에 빠져 죽는 것 ⑥ 온갖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는 것 ⑦ 높은 산이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 ⑧ 독약과 기도와 저주와 起屍鬼(주문의 힘에 의하여 시체를 일으켜 세워 원한이 있는 사람을 해치는 귀신) 등의 해침을 받아 죽는 것 ⑨ 배고프고 목마름에 시달리다가 끝내 먹고 마실 것을 얻지 못해서 죽는 것이다. 구형사에는 중생의 병고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와 과계·범법자 구제도 포함되어 있다.

밀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불상 조성 등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십일면관을 상을 조상하는 것과 비로자나불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탑에 인왕, 사천왕 등을 조각하고, 탑 속에 다라니를 안치하는 것, 사천왕사의 건립 등을 통하여 밀교가 신라 시대의 민중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신라불교의 약사신앙은 밀본에 의해 최초로 신라왕국에 밀교를 고착시킨 원동력이 되었고, 질병 치료를 위주로 하였던 초기 유행 형태는 명랑에 의하여 호국사상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된다. 따라서 약사신앙은 유행 초기 토착신앙인 무속신앙과 갈등한 것과 달리 호국사상을 통하여 신라의 정신을 하나로 집약시켰다. 즉 교파를 초월하여 왕족과 귀족 그리고 민중 모두로부터 널리 신앙이 된 것이다. 또 약사여래의 12대원을 통하여 일체중생에 대한 복지 이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승불교의 초기 보리심 사상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신라시대의 전쟁과 기아, 질병 등의 현세적 고통으로 중생이 신음할 때 약사여래의 보리심 사상 즉 대자대비심은 중생을 현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였다. 약사여래의 12대원은 '약왕'이라는 불보살의 발보리심과, 보리심 사상에 기원한 서원의 공덕으로 이후 약사여래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약사불의 12대원은 중생심을 제도하고 거두고 일체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하며 불국도에 태어나게 하려는 보리심 사상의 궁극인 것이다. 또한 '유리광'이라는 뜻은 일체의 어둠을 능히 제거하여 무명이 없어지고 오로지 밝음만이 존재하는 불토를 성취시킨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 복지국가와 사상적 의미가 맞닿아 있다.

신라불교의 약사신앙에 나타난 밀교적 특성을 통하여 약사여래의 보리심 사상을 엿볼 수 있으며 신라시대 유행했던 복지관과 약사여래의 보리심 사상에 관련된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出三藏記集』 T5.

『藥師如來本願功德經』 T14.

『삼국유사』 2권, 3권, 4권, 5권.

『삼국사기』 9권.

고익진. 1988. 『古代韓國佛教教育研究』, 佛敎史學會 編. 민족사.

곽도희(香空). 2015. 「統一新羅時代 藥師信仰 및 藥師佛像 研究」,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 27.

김미진. 2018.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의 淨土思想과 그 意義」,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27-31.

김복순. 2016. 『신라 사상사 연구』, 경인문화사.

김재경. 1988. 「신라의 밀교 수용과 그 성격」, 『신라미타정토사상연구』, 민족사.

김정숙. 2022. 「약사여래 신앙의 현대적 의미와 신앙적 가치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Vol.22 No.6 : 428.

문명대. 1997. 「新羅 下代 佛敎彫刻의 研究(1) -防禦山 및 實相寺 藥師如來巨像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제73호 : 30-32.

서윤길. 2006. 『한국밀교사상사연구』, 운주사.

신종원. 1998. 『신라 최초의 고승들』, 민족사.

유근자. 1993. 「統一新羅 藥師佛像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5-35.

유동직. 1989.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대출판부.

이현숙. 2003. 「신라 통일기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책」, 『韓國古代史研究』 제31호 : 240-244.

장충식. 1986. 「한국불교 미술의 밀교적 요소」, 『월간 해인』 제58호 : 476.

정병삼. 2013.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 『불교연구』 제39호 : 61-76.

정성준. 1993. 「新羅 藥師信仰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4-6.

정승석. 1989. 『佛典解說事典』, 민족사.

홍재성. 2011. 「地藏思想과 삼계교 - 지장계 경전을 中心으로 -」, 『淨土學研究』, 한국정토학회, vol., No15 : 68.

허형욱. 2021. 「新羅 藥師信仰의 전개양상과 그 특징」, 『신라문화』 동국대학교 신라 문화연구소,
Vol.59 : 415.

小野玄妙(1939). 『佛教の美術と歴史』 金尾文淵堂.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odhicitta Thought in Bhaisajyaguru-beliefs during the Silla Dynasty

Oh Hyunhee

(Ph.D., Dongguk University)

In the early days when Buddhism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firstly was understood and accepted as an esoteric element of Mahayana Buddhism for healing and salvation rather than a complicated and profound doctrinal understanding. Therefor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esoteric aspects of Korean Buddhism demands understanding the overall background and flow of Korean Buddhism. One of the esoteric forms of Korean Buddhism is the Apothecary Faith of the Silla Dynasty. Bhaisajyaguru-belief (藥師信仰) of Silla Buddhism were widely practiced throughout the civilian and royal hierarchies of Silla from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as evidenced by extant texts and artifacts of Silla Buddhism and historical works. Bhaisajyaguru-belief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tion of Silla Buddhism and the development of Esoteric Buddhism of Silla which the *Samguk Yusa* (三國遺事) and *Samguk Sagi* (三國史記) being central to the literature that conveys what Bhaisajyaguru-belief (藥師信仰) at that time. The Silla's medical science and pharmacist faith can be characterized by its focus on curing disease, saving lives, and returning to the Pure Land of the East. The Silla society's Bhaisajyaguru-belief can be

said to have shaped Silla's welfare worldview based on the Bodhisattva's idea of bodhichitta, which is in line with modern welfare ideologies. In Silla society, when sentient beings groaned under the temporal suffering of hunger, disease, and poverty, Bhaisajyaguru sought to relieve them from their temporal suffering. Therefore, Bhaisajyaguru's The 12 Great Vows are the ultimate embodiment of bodhichitta, actively realizing Bhaisajyaguru's bodhichitta to institutionalize and enlighten sentient beings so that they can be born in the Pure Lan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unique culture of Silla Buddhism and the deep esoteric background of Korean Buddhism through the Bhaisajyaguru-belief.

keywords: Silla Buddhism, Bhaisajyaguru, Bhaisajyaguru-belief, Esoteric Buddhism, Sutra of the Medicine Buddha, bodhichitta thoughts.

2023년	8월 28일	투고
2023년	10월 3일	심사완료
2023년	10월 12일	게재확정